

# 晦齋 李彦迪先生의 遺跡地 探訪記

金澤洙



## 1) 晦齋 李彦迪先生의 生涯가 깃든 玉山書院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千峰紫玉落晴天 - 일천 봉우리 자옥산이 맑은 하늘아래 내려왔으니  
形勝曾於國誌傳 - 이 아름다움은 일찍이 국지(國誌)에 전해온 바로다.  
今日看看眞面目 - 오늘에야 그 참다운 모습을 보고 또 보노라니.  
令人直欲賦歸篇 -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 시책이나 역도록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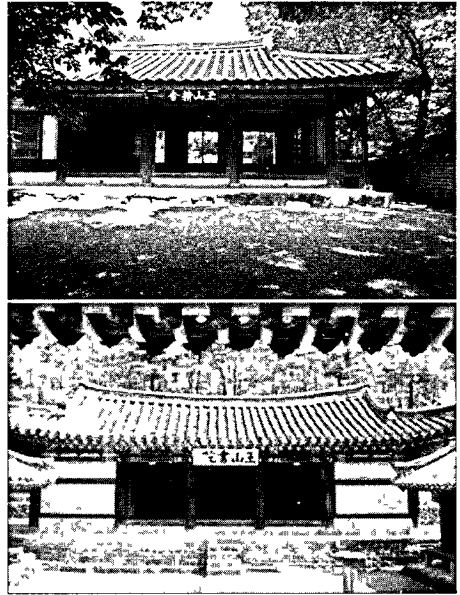


회재 이언적선생을 탄생시킨 경주시 강동면 양동민속마을 전경

이상은 관원 박계현(灌園 朴啓賢)<sup>1)</sup>이 자옥산 기슭에서 읊은 열여섯 구절의 시(十六詠) 가운데 한 구절이다 이 한구절만 감상해보아도 부디 자옥산을 가보지 않아도 자옥산의 그 아름다움을 가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우리나라 명산들의 대부분은 그 정상이 기암괴석들로 이루는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북 영천에서 4차선 28번 국도를 타고 포항쪽으로 달리다가 안강 땅에 들어서면 좌편으로 한 점의 기암괴석도 눈에 띄지 않는 비록 명산의 대열에 들지는 않았지만, 자옥산(紫玉山 · 563m)과 도덕

산(道德山 · 702m)의 자태에 자못 매혹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산들이 자웅(雌雄)을 겨루듯 아름답고 장엄하게 용트림하며 내려뻗는 산세의 수려함과 필자가 찾았을 때는 마침 늦가을이라 단풍으로 붉게 물들이니 문자 그대로 자옥산(紫玉山)이 자옥산(紫玉山)을 이룬 그 아름다운 자태에 달리는 차안에서 멀그러미 바라만 봐도 구태여 호남 땅에서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이에까지 찾아온 필자처럼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미치광이가 아니더라도 감탄을 절로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 자옥산의 용트림을 끼고 국도에서 도덕산을 향하여 협곡의 자계천을 거슬러 2km쯤 들어가면 양지바른 언덕에, 퇴계선생의 스승이요 동방오현(東



▲ 독낙당의 옛 옥산정사(上)와 선조의 현액이 걸린 옥산서원(下)

1) 관원 박계현(灌園 朴啓賢 1524~1580(중종19~선조13) 조선 전기 문신 자는 군옥(君沃), 호는 관원(灌園) 본관은 밀양(密陽) 1543년(중종 38) 진사가 되고 52년(명종7)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 55년 부수찬 경상도평사(慶尙道評事)가 되어 유장(儒將)을 기르는 책임을 맡았다 56년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59년 장단부사에 의해 변방으로 쫓겨났다가 63년 예조 형조의 참의, 도승지, 경상도관찰사 지중추부사 호조판서 등을 지냈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며, 그가 대사헌(大司憲)으로 있을 때, 윤원형(尹元衡)과 그 일당의 폭역(暴逆)을 죄를 다스리고 회재의 원한을 풀어주며 증관(贈官)과 증시(贈諡)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方五賢)의 한분인 회재 이언적선생의 애한의 생애와 숭고한 학문을 탄생시킨 독락당(獨樂堂)과 그 분을 향사(享祀)드리는 옥산서원(玉山書院)이 500m의 거리를 두고 400여년의 유구한 풍상 속에서도 옛 모습을 숙연히 지키고 있다

경북지방에 五大書院의 하나로 손꼽히는 옥산서원(玉山書院)이 들어 선 것은 회재선생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난 후에 영남의 사림(士林)들이 선생의 학덕을 기려 이 묘우(廟宇)를 세운 것이다. 그 2년 뒤인 1574년에는 선조가 ‘옥산서원(玉山書院)’이라 현액(懸額)을 내림으로써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승격됐다. 그 뒤로 몇몇 건물이 크고 작은 화재를 당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중건되었고, 잦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다행히 전화(戰禍)를 크게 입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정문인 역락문(亦樂門)을 들어서면 무변루(無邊樓)라는 2층 누각과 강당인 구인당(求仁堂)이 마주하게 되고, 기숙사로 쓰였던 동재(東齋)인 민구재(敏求齋)와 서재(西齋)인 암수재(闇修齋)와, 그리고 회재선생에게 내려 보낸 어필과 서책 등을 보관한 어서각(御書閣)과 장서각인 청분각(淸芬閣)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 곳곳에는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 석봉 한호(石峯 韓濩),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등 당대의 명필들이 쓴 현판들도 곳곳에 걸려 있다. 그 밖에 회재 선생의 신도비(神道碑)와, 강당 뒤편으로는 돌담에 둘러싸인 사당이 있다.

이 옥산서원에서 자계천을 따라 500m 쯤 거슬러 올라가면 회재선생이 낙향하여 학문에 몰입하며 당대의 거유들로 더불어 유유자적했던 보물 제413호인 독락당(獨樂堂)은 회재선생이 김안로의 횡포를 막고자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1516년 조선 중종(中宗) 11년에 세웠으며, 일명 옥산정사(玉山精舍)라 하였다. 회재는 이 집을 마련한 뒤 그곳의 정경을 사랑하고, 고독을 달래고 홀로 즐긴다는 뜻에서 독락당(獨樂堂)이라 이름 하였다. 주변의 수려함과 뒤편으로는 별당인 계정(溪亭) 등이 조화를 이루며 옛 모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회재는 이 독락당에서 스스로의 회포를 다음과 같이 읊는다

萬物變遷無定態 - 만물이 변하고 바뀔은 정함이 없는 태도요  
 一身閒適自隨時 - 이 한 몸 한가함은 스스로 시대에 따름이라  
 年來漸看經營力 - 해마다 힘들여 하는 일 이마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長對青山不賦詩 - 오래도록 푸른 산 마주하며 시나 읊지 않으랴!

이 시는 회재를 아는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膾炙)되는 유명한 작품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자옥산의 골짜기는 도덕산 나래 깊숙이 이어있고, 풍광이 명미(明媚)하여 사시사철 유상객들이 붐비는 듯 서원의 건너편에는 큰 사찰과 모텔 등이 들어서고, 서원 앞을 흐르는 자계천(紫溪川)에는 깨끗한 너럭바위들이 깔리고, 유유히 흐르는 맑은 계류는 바위마다 소(沼)와 폭포를 빔어놓아 피약별이 내리쬐이는 한 여름 그늘 짙은 계곡 너럭바위 위에 한나절쯤 쉬노라면 세간의 시름이 절로 씻겨질 법하다. 이곳 독낙당에서 五峯, 西崖, 旅軒, 東岳 등등 당대의 거유들께서 회재와 교류하며 시를 읊어 그 자취를 남겼는데 이 분들의 운(韻)에 필자는 감히 다음과 같이 차운(次韻)의 흥내를 내본다.

謹次 獨樂堂 韻

山自白頭來 紫玉最明奇	산이 백두로부터 왔으니 자옥산이 가장 밝고 기절하네
東國雖多賢 道脉在於斯	동국에 비록 어진이 많았으나 도맥이 여기에 있었도다!
士論多分裂 永作西道悲	士論의 분열도 많았으니 西道의 슬픔을 기리 지었노라.
遺編光宇宙 尊奉明訓垂	남기신 기록 천지에 빛나니 밝은 가르침을 높이 받드네.
世遠人已去 杖屨何追隨	세상은 멀고 사람도 이미 가셨으니 장구를 어찌 따를쏘냐!
後學 金澤洙	후학 김택수

이어서 퇴계 이황의 스승이었던 회재의 생애와 학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회재 이언적의 생애》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자는 복고(復古)이며, 호는 회재(晦齋), 또는 자계옹(紫溪翁)이라 하였으며, 관향은 여강(驪江)으로 1491(성종22)년에 경주의 양좌촌(良佐村 : 지금의 良洞마을)의 무첨당(無忝堂)이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는 생원(生員)인 이번(李蕃)과, 어머니는 경주 손씨(慶州孫氏)로 계천군(鷄川君) 소(昭)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연산(燕山) 8년에 구사재(舅四宰) 손중돈(孫仲墩)에게 취학하여 성리학을 익히고 늘 산사(山寺)에 거처하면서 독서에 열중하였다. 1514(중종 9)년 문과에 급제, 천관랑(天官郎)을 비롯한 인동현감(仁同 縣監),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밀양부사(密陽府使) 등을 거쳐 1530(중종25)년에 사간(司諫)에 이르렀다.

당시 김안로(金安老)의 거용(擧用)에 극력 반대하다가 심언광(沈彦光) 등의 모략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중종32년에 김안로의 일파가 쫓겨난 뒤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과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고,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명성을 얻었고. 수천언(數千言)의 상소를 올려 국가 대본(國家大本)과 정치 강령(政治綱領)을 논하여 왕의 찬탄을 받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특가(特加)되어 예조참판(禮曹參判)과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하고 1545(인종1)년에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이 되었다.

이듬 해 권신(權臣)인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샀는데 마침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sup>2)</sup>이 일어나자 모함하여 강계(江界)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중용구경언의(中庸九經衍義) 29권을 완성하지 못하고 63세를

2)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 조선 명종 때 일어난 정치적 사건 정미사화라고도 한다 을사사화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1547년(명종 2) 경기도 광주(廣州)의 양재역(良才驛)에서 위로는 여왕, 아래는 이기가 권세를 휘둘러 나라가 망하려하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익명의 벽서가 발견되었다 이를 빌미로 윤원형(尹元衡) 등의 소윤 일파는 을사사화 때 대운 일파에 처벌이 미흡한 증거라며 봉성군(鳳城君) 완, 송인수(宋麟守) 이약수(李若水) 등을 사사하고, 이언적(李彦迪) 정자(鄭磁) 노수신(盧守愼) 정황 등 20여 명이 유배를 당하였다

일기로써 타계하였는데, 1568년 선조가 즉위하자 좌의정 이명(李莫)의 주청으로 신원복권(伸冤復權)되어 영의정이 추증(追贈)되고, 다음 해 문원(文元)이라 증시(贈諡)되었고, 선조 6년에는 옥산서원(玉山書院)에 제향되었고, 1610(광해군2)년에는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었다. 후에 율곡(栗谷)은 선생을 한훤당(寒暄堂), 일두(一蠹), 정암(靜庵)과 함께 동방사현(東方四賢)으로 추모하였다.

《회재의 주리학설(主理學說)》 『심성론(心性論)의 주요 논제인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설명함에 있어 심성(心性) 내부에 존재하는 천부적인 선(善)한 본성인 사단은 이(理)가 발동한 것이고, 선과 악(惡)이 섞여 있는 칠정은 기(氣)가 발동한 것이다.』라는 이른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즉 주리학설(主理學說)의 단초(端初)를 마련하여 제자인 퇴계(退溪)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성리학사상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일찍이 28세의 젊은 나이에 선배학자인 손숙돈(孫叔暉)과 망기당(忘機堂) 조한보(曹漢輔)와의 수삼차(數三次)에 걸친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에 관하여 벌린 논쟁에 뛰어 든 것은 조선초유의 대논쟁(大論爭)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회재선생이 주창한 주리학설의 대강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양대 학파 가운데 하나로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바탕으로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재를 이(理)로 보는 이황(李滉)의 학설을 계승한 영남학파의 철학의 단초이다. 즉 이와 기(氣)가 어디까지나 두 가지이지 한 가지가 아니며, 기는 결코 상존하지 않고 생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이는 항존불멸하는 이치로서 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법칙이며, 능동성을 가진 이(理)가 발동하여 기(氣)를 주재한다는 주장이다

즉, 16세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관심분야는 심성론(心性論)이다. 이것은 특히 오상(五常)과 사단칠정(四端七情)으로 포괄되는 인간의 성정(性情)을 이기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사단칠정이라는 인간의 감정현상을 설명함에 사단과 칠정에 이와 기가 모두 관여하지만 사단은 이발(理發)로, 칠정은 기발

(氣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당시 호남의 기대승(奇大升)이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그후 기대승의 견해를 계승한 이이(李珥)에 의해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발로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을 성립시켰다. 이 사단 칠정론의 차이는 이기론·심성론·수양론을 포함하는 성리학 전체의 이론적 체계를 달리하는 것이었으며, 그후 이황과 이이 이 학파사이에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게 논쟁을 거듭하게 된다. 그 가운데 이황의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을 주리파(主理派) 혹은 주리론이라 하며, 이이의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과 이들의 이론은 주기파(主氣派) 혹은 주기론이라 한다.

저서로는 봉선잡의(奉先雜儀),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진수팔규(進修八規),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속 대학혹문(續 大學或問) 등이 있다.

## 2) 晦齋先生의 出生地 양동민속마을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



옥산서원을 빠져나와 다시 국도28호선을 타고 포항 쪽으로 8km 쯤에 이르면 왼편으로 바라보이는 산 끝자락에 주렁주렁 매달리듯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양동마을의 첫 느낌은

이색적이고 마치 경주의 크고 많은 유적들에 밀려 쫓겨나오듯 한적하여 외롭게 까지 느껴져 호남 땅에서 처음 찾아온 필자에게는 자못 처량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서면서 그 500여체에 이르는 마을의 규모나 문화재로



▲ 무청당 앞에서 일행 앞줄 우로부터 시계방향으로 1, 고문학자 변시연 응 2, 필자 3, 동행기사 이원봉씨 4, 회재의 종손 이지락씨 한학자 유한상 응 곡성 창성당한약방 이병표 원장

지정받은 숫자를 헤아리면 안동의 하회마을을 능가하는데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의 큰 물돌이로 완벽한 태극형을 이룬 반면에, 이곳은 멀리 태백산으로부터 뺏고 뺏어내린 설창산(雪蒼山)을 주봉으로 하는 문장산(文章山)이 마을 뒤에서 말물자(勿字)형을 이루고, 좌선회하는 안락천이 얹고 감돌 듯

앞에서 형산강과 합수되면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세를 갖추고, 안강 쪽으로 펼쳐진 넓은 들녘이 풍요롭게 느껴온다. 여기서 문장산의 가지가지 말물자(勿字)형의 골자기와 그 능선들을 효과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기저기 지은 옛 양반나리 큰 가옥들이 고색창연한 원래의 모습으로 즐비하게 고스란히 보존되어오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고택들 아래 하인들이 거주한 듯 초가집들 옆 외양간에는 관광객을 위한 몇 마리의 승마용 말이 뒷발질을 하면서 일행을 부르듯 특유의 울음소리를 짓어대며 관광객을 유혹한다.

알기로는 전국에 6개소의 전통민속마을이 있으나, 마을의 규모, 보존상태, 문화재의 수와 전통성,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때 묻지 않은 향토성 등에서 어느 곳보다 훌륭하고 볼거리가 많아... 국보가 1. 보물이 4. 중요민속자료가 12. 유형문화재가 2. 등등 기타 문화재자료를 합쳐 총 24점이나 있고, 1984년에는 마을전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1992년에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이곳을 방문했었다. 오늘 우리 일행은 특별히 회재선생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종택으로 보물 제411호이며 대원군이



집권 전에 이곳을 방문하여 죽필(竹筆=대나무를 으깨어 만든 붓)로 쓴 “영남의 풍류와 학문”을 의미한다는 좌해금서(左海琴書)라는 글씨가 걸려있는 무침당(無忝堂)을 방문하여 회재선생의 7대종손인 이지락(李址洛)씨와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는 경북대학원에서 한문학박사까지 획득한 30대중반의 석학으로서 일행에게 안내책자를 일일이 나누어 주며 양동마을에 대하여 여러 정보를 친절히 안내하여 준다.



▲ 대원군의 죽필(竹筆) 左海琴書

이박사의 설명과 안내 책자에서처럼, 양동마을의 역사와 규모를 세세히 살피려면 하루도 모자랄 바인데, 하물며 단 몇 시간의 머뭇머뭇 기록하여 함축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우선 마을의 유래부터 간략히 살펴보면, 마을이 형성과정의 기록된 바는 없고 다만, 마을의 안산(案山)에서 청동기시대의 석관묘(石棺墓)가 100여기나 있었고, 이웃 마을 안계리에 고분군(古墳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인 4~5세기경부터서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며, 영남대에서 발간한 고문서집성에 의하면, 그후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여강 이씨(驪江 또는 驪州 李氏)인 이광호(李光浩)가 이 마을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손서(孫壻)가 된 풍덕 류씨(豐德 柳氏) 류복하(柳復河)가 처가에 들어와 살았고,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540여년 전에 청송 안덕에 살던 양민공 손소(襄敏公 孫紹)가 류복하의 무남독녀와 결혼한 후 처가인 이곳 양동으로 이주하여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아 살다가, 후에 나라의 공신이 되어 고관의 반열에 오르면서 차츰 양반들의 집단마을로 자리를 잡아 가게 되었다.

이어 이광호의 재종증손(再從曾孫)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성균생원 찬성공(贊成公) 이번(李蕃)이 손소의 7남매 가운데 장녀와 결혼하여 영일(迎日)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살고 이들의 맏아들이자 동방5현의 한 분인 문원공 회재 이언

적(文元公 晦齋 李彦迪)선생을 배출시키면서 손씨, 이씨 두 씨족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양동마을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 【양동마을의 문화재 현황】

- 1) 국보 1점 : 통감속편(通鑑續編, 283호)
- 2) 보물 4점 : ① 무첨당(無添堂, 411호), 향단(香壇, 412호), ② 관가정(觀稼亭, 442호), 손소영정(孫昭影幀, 1216호)
- 3) 중요민속자료 12점 : ① 서백당(書百堂, 23호), ② 낙선당(樂善堂, 73호) ③ 사호당(沙湖堂, 74호), ④ 상춘헌(賞春軒, 75호), ⑤ 근암고택(謹庵古宅, 76호), ⑥ 두곡고택(杜谷古宅, 77호), ⑦ 수졸당(守拙堂, 78호), ⑧ 이향정(二香亭, 79호), ⑨ 수운정(水雲亭, 80호), ⑩ 심수정(心水亭, 81호), ⑪ 안락정(安樂亭, 82호), ⑫ 강학당(講學堂, 83호)
- 4)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7점
  - 유형문화재 : 적개공신논상록권(敵愾功臣論賞錄券, 13호)  
손소선생분재기(孫昭先生分財記, 14호)
  - 기념물 : 양동의 향나무(8호)
  - 민속자료 : 대성헌(對聖軒, 34호)
  - 문화재자료 : 손종로정충비각(孫宗老旌忠碑閣, 261호)
  - 향토문화재 : 경산서당(景山書堂), 두곡영당(杜谷影堂)

### 【학문과 인물】

양동마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학문과 교육부분으로서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을 배출해냈다는 점이다. 조선 중기로 부터서 조선사회와 중앙정계를 지배한 사림(士林)들 중에서 우선 1459년 즉 세조5년에 이 마을의 손소(孫紹)가 문과에 급제하고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하여 이시애(李施愛)

의 난을 진압할 때에 공훈을 세워 공신이 되고 이어서, 그의 둘째 아들인 손중돈(孫仲墩)이 1489(성종2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와 우참찬 등 요직을 40여년 동안을 역임하면서 청백리 반열에 오름을 효시로 해서...

다음 회재 이언적선생이 나와 퇴계선생에 앞서서 이기론(理氣論)의 체계를 성립시킴으로서 조선조의 성리학의 기초를 닦아 해동의 부자(海東夫子)라 불리고 동방 5현(東方五賢)의 한분으로 문묘(文廟)에까지 배향되는 추앙을 받게 된다. 이렇게 시작해서 양동마을에서 배출한 인물이 손씨와 이씨의 양 가문을 합해서 문과가 26명, 무과가 14명, 사마(司馬)급이 76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총 116명이고, 기타 음직은 헤아릴 수가 없고, 이어서 왜정 때에는 국외로 유학한 사람이 20여명이 넘었으며, 현대로 들어와서는 장관이 2명, 교수가 60여명, 검, 판사가 30여명에 이를 정도로 계속해서 인물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필자일행은 李博士의 환송을 뒤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읊어보며 양동민속마을을 나온다.

<2004. 11. 7>

兩賢十世世居地	양가의 어진이가 十세가 세거한 땅인데
烜赫名聲擅所聞	빛나고 빛난 명성이 듣던 바를 떨쳤네.
道學文章爲第一	도학과 문장으로 이 땅에서 제일이라
如千細瑣復何云	여간의 세세함을 어찌 다시 말할쏘냐.

德山 金澤洙      덕산 김택수

(대원당한약방 광주시 북구 풍향동 605-9 ☎ 062)527-3000)